

원격대학원생 학습만족도 분석: J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이정열
중부대학교 교직과 교수

Analysis on the Satisfaction of the Cyber Graduate Student: Focusing on J University Case

Jungyull, LEE
Professor, The Faculty of Education, Joongbu University, South Korea

요 약 이 연구에서는 원격대학원생의 만족도가 성, 학기,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J대학 원격대학원생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대학원생의 성별 만족도는 교수자, 오프라인 활동, 수업평가에서 남녀 간에 통계적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격대학원생의 학기별 만족도는 교육과정, LMS, 강의 콘텐츠 질, 오프라인 활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연한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원격대학원생의 전공별 만족도는 LMS와 수업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교육행정 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원격대학원의 교육과정, LMS 구축, 강의 콘텐츠 개발·제작 등 학생 중심 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개선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원격대학원, 만족도, 교육과정, 콘텐츠, LMS, 오프라인 활동, 수업평가

Abstract In this study, 186 remote graduate students from J University were surveyed and interviewed in-depth to see if their satisfaction varies depending on their gender, semester, and major,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gender satisfaction of remote graduate students was shown to be statistical significance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in professors, offline activities, and class evaluations, all of which showed that men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women. Second, the satisfaction level of each semester of remote graduate students was shown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in curriculum, LMS, lecture content quality, and offline activities, and tended to increase as the school year went up. Third, the satisfaction level of remote graduate students by major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in other factors except LMS and class contents, with the highest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to improve elements absolutely necessary for student-centered education, such as curriculum of remote graduate schools, establishment of learning platform (LMS), and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lecture contents.

Key Words : Cyber graduate school, satisfaction, curriculum, content, LMS, offline activities, class evaluation

*This paper was supported by Joongbu University Research & Developmental Fund, in 2020.

*Corresponding Author : Jungyull, Lee(jungyull@joongbu.ac.kr)

Received January 18, 2021

Revised January 29, 2021

Accepted February 20,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1

1. 서론

원격수업(remote learning)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미한다[1]. 또한 원격수업은 정보통신 기기 및 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총칭하는 이러닝(e-learning), 온라인 교육(on-line education), 사이버 학습(cyber learning) 등과 혼용되고 있다[2].

2000년 3월 평생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1년 3월 최초의 사이버대학 9곳이 개교되었고, 원격대학원은 2001년 3개, 2004년 6개, 2013년 9개 학교가 설치되었다[3]. 특히 2001년에는 중부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에 원격대학원이 개설되었는데, 이 두 원격대학원은 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 설치된 유일한 특수대학원이다. 당시 '원격대학'이란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008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고등교육법에 사이버대학을 추가, 원격대학으로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평생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들은 점차 고등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였다. 오늘날 교육통계에는 이전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원격대학'으로 축약해서 표기하고 있다.

원격수업은 주로 방송매체,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교수-학습 매체로 활용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 학기술의 발달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원격수업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알려지고 있다. 원격수업은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장소에서 짜여진 시간표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통적 교실수업의 벽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수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은 학령기의 개념에도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는데, 정규 학교의 틀을 벗어난 성인교육과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원격수업의 최대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육이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면 수업의 여러 장점들, 즉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교육내용 전달 외의 잠재적 교육과정, 수업진도의 조절, 흥미 유발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원격수업의 단점을 극복하는 것은 원격수업이 지니고 있는 원초적 숙제인지도 모른다.

최근 교육부는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부[1]의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이 대표적인 예다. 이 기준은 원격수업의 개념 및 적용 범위, 원

격수업 운영, 교과목 구성 및 학점, 평가 및 콘텐츠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수업평가와 콘텐츠 질 관리, 시설·설비에 관한 기준은 원격수업을 받는 학습자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원격수업은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원격수업의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습자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무엇보다 학습자 중심 철학, 즉 원격수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자에 대한 배려가 스며들어 있을 때 비로소 원격수업이 지니고 있는 원초적 한계점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겠지만 원격수업에서 학습자에 대한 배려의 출발점은 학습자의 만족도라고 할 수 있다.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는 것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대강의 가늠자이기도 하다. 대체로 성인학습자의 학습 성과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로서의 점수 그 자체보다는 학습자 자신의 주관적 인식과 만족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만족도를 성과 변인으로 간주하기도 한다[4-7]. 또한 학습자의 만족도는 휴학 후 재등록하여 학습을 계속할 것인지 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8, 9].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학습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양하지만[10-13], 그 중에서도 학습자 특성이 주요 변인으로 간주된다[14-16]. 그밖에 교육부[1]가 제시하고 있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들도 학습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와 교육부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고려하여 원격수업의 만족도 요인을 추정할 수 있는 바, 대체로 교육과정, 수업운영체제(LMS), 수업 내용, 강의 콘텐츠, 교수자, 오프라인 활동, 교수자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 수업 평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원격대학원생은 성인학습자로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직장인이 대부분이다. 성, 연령, 직장 등 학습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원격학습의 주요 매체인 컴퓨터나 정보통신기기 등 원격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도 다르다[17]. 이에 비추어 볼 때, 학습자의 성, 학기, 전공에 따라 원격대학원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연구와 심층면담을 병행하여 원격대학원생의 성, 학기, 전공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방법

2.1 연구 참여자

이 연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J대학 원격대학원 재학생 579명 전체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198명(응답률 34.2%)이었는데, 미응답 항목이 있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명의 자료를 제외한 186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심층면담은 J대학 원격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즉, 각 연구문제별로 설문조사의 결과를 말해주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등 설문조사만으로는 알아보기 어려운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담 참여자의 성, 학년, 전공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istribution of survey & FGI participants by gender, semester and major

factors		number of cases(n, %)				
survey (186)	gender	M(82, 44.1)		F(104, 55.9)		
	semester	1st(72, 38.7)	3rd (67, 36.0)	5th(47, 25.3)		
	major	education (16, 8.6)	social administr ation(2) (52, 28.0)	educational counselling (78, 41.9)	teaching & learning(2) (21, 11.3)	career & occupation (19, 10.2)
	gender	M(5)		F(5)		
FGI (10)	semester	1st(3)	3rd(4)	5th(3)		
	major	social welfare (2)	education al administr ation(2) (2)	educational counselling (2)	teaching & learning(2) (2)	career & occupation (2)

2.2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원격대학원생의 만족도 조사지’는 다음 절차를 거쳐 제작되었다. 먼저, Shin[18]의 연구에서 사용한 이러닝 만족도 조사지의 문항을 이 연구의 맥락에 맞게 번안하였다. 다음으로, 번안 문항으로 만족도 조사안을 작성하여 5명의 원격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각 문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수정, 보완하였다. 최종 선정된 만족도 문항은 ① 교육과정(2문항), ② LMS(2문항), ③ 수업 내용(2문항), ④ 강의 콘텐츠(3문항), ⑤ 교수자(2문항), ⑥ 오프라인 활동(1문항), ⑦ 교수자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1문항), ⑧ 수업평가(2문항) 등 모두 8

개 영역의 15개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원격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원격교육 전문가 3인의 안면타당도 검증을 거쳤으며, 문항의 내적일치도인 Cronbach α 계수는 .911이다. 조사지의 문항 요인 및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factors and contents of the survey

No.	factor	content
1	curriculum	Is the curriculum useful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graduate school?
		Does the curriculum help you perform your duties at work?
2	LMS	Is LMS easy enough for beginners to use?
		Is the LMS capable of interaction between professors, students, and students?
3	contents of class	Does the contents of the class reflect the latest information?
		Are the contents of the class related to the class goal?
4	quality of contents	Has the lecture contents been produced recently?
		Is the screen clear?
		Is the progress of the class appropriate?
5	instructors	Does the professor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class well?
		Do professors strive to achieve their class goals?
		Does the professor induce interest through various gestures and tone control of voice?
6	off-line activities	How is the level of offline activities, such as seminars and small meetings by department?
7	interaction	Are there active communication or interaction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offline?
8	class evaluation	Is the evaluation method appropriate?
		Is the class evaluation conducted fairly?

2.3 자료 수집

설문조사는 2020년 7월 27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 J대학 자체 인터넷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였다.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학과 대표에게 협조를 부탁하였고, 조사대상 원생들에게도 별도의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를 당부하였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설문조사의 취지와 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심층면담은 설문조사가 끝나고 자료 처리를 한 후 그 결과에 대해 그 이유를 묻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의 줌(Zoom)을 활용하여 집단면담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은 약 1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면담 내용은 줌 시스템에서 자동 녹화되었다. 줌 집단면담에서 즉시 답변이 어렵거나 다른 동료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사람에게는 추후 이메일로 답변을 하도록 하였다.

2.4 자료 처리

원격대학원의 만족도가 성, 학기,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검증을 하였는데, 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응표본 t -검증을, 학기와 전공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2.0 버전을 활용하였다.

3. 결과

J대학의 원격대학원생들의 만족도가 성, 학기,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성별 만족도 차이

J대학 원격대학원생의 만족도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교수자($t = 3.412, p < .05$), 오프라인 활동($t = 3.10, p < .05$), 수업평가($t = 3.46, p < .05$)에 대한 만족도는 남녀 간에 통계적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격대학원생의 성별 만족도 차이를 비교하고자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교수자, 오프라인 활동, 수업평가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심층면담 결과, 대체로 남녀 간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교수자, 오프라인 활동 및 수업평가에 대한 남녀 차이에 대해 평소에 그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격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특별히 남녀 간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오프라인 활동을 더 원하는 것 같기는 해요(면담자 F).”

“교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전공 지식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외모나 말투 등 개인적인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남녀 간에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면담자 A).”

“저는 논문을 써본 적이 없지만 연구에서 남녀 차이를 알아보는 논문들이 많던데 그걸 왜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지 않나요? 설령 다르게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남자나 여자나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차이일 것 같아요. 여하튼 연구에서 남녀 차이를 말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맘에 들지 않습니다(면담자 C).”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종합해 보면, 교수자, 오프라인 활동 및 수업평가에 대한 원격대학원생의 만족도는 남녀 간에 통계적 유의차가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면담 결과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어느 정도 수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격교육에 대한 만족도의 남녀 간 차이를 알아보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남녀 간의 차이를 옳고 그름, 합리 대 비합리 등으로 이원화할 위험이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Table 3. Difference in satisfaction level of the a remote graduate student by gender

satisfaction factors	male	female	t
	M(SD)	M(SD)	
curriculum	3.16(1.22)	3.05(1.19)	.845
LMS	3.38(1.07)	3.44(1.17)	.732
contents of class	3.69(1.02)	3.56(1.03)	1.037
quality of contents	3.19(1.05)	3.30(1.08)	1.108
instructors	3.94(1.02)	3.34(1.06)	2.423*
off-line activities	3.30(1.07)	3.18(.99)	2.249*
interaction	3.15(.99)	3.79(1.18)	1.117
class evaluation	3.46(1.09)	3.12(1.05)	2.083*

* $p < .05$

3.2 학기별 만족도 차이

J대학 원격대학원생의 만족도가 학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F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원격대학원생의 학기별 만족도는 교육과정($F = 6.046, p < .05$), LMS($F = 10.122, p < 0.01$), 강의 콘텐츠 질($F = 8.807, p < .01$), 오프라인 활동($F = 6.104, p <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격대학원생의 학기별 전반적 만족도는 1학기($M = 2.96, SD = 1.16$), 3학기($M = 3.29, SD = 1.11$), 5학기($M = 3.51, SD = 1.05$)로 학기가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띄었으나 통계적 유의차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심층면담 결과, 원격교육에 대한 학기별 만족도 차이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기가 올라갈수록 만족도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하였다.

“원격대학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코로나 핑계로 오리엔테이션도 대충 했구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스스로 배우면서 익혔는데... 어쨌든 신입생들한테는 수업방식...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방식을 철저히 안내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면담자 D)

“LMS에 대해서는 누구나 처음에는 낯설고 잘 모르지만 한 학기만 지나면 사용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용법보다는 시스템의 질에 관심을 갖게 되던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플랫폼에 대한 불만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면담자 A)

“첫 학기 때는 멋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학기가 올라갈수록 다른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면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학기말에 있는 세미나가 그래서 기다려지기도 해요. 그런데 세미나 때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을 본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많아요. 세미나 참석률을 높이려는 꼼수 아니냐고 농담하기도 하고... 그래도 세미나를 통해 동료들과 만나는 것을 대부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면담자 H)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입생들한테는 평가를 엄격히 합니다. 원격대학원이니까 어지간하면 학점을 주겠지,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원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기가 올라감에 따라 점차 학점을 후하게 줍니다. 다른 교수님들도 대체로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면담자 G)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종합해 보면, 설문조사에서 교육과정, LMS, 강의 콘텐츠 질, 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학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학기가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층면담에서도 그와 같은 결과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면서 경험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나 심층면담에서도 그밖의 요인들에 대한 만족도가 학기에 따라 왜 차이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특히 심층면담을 통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LMS에 대한 안내 및 사

전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수업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학기가 올라갈수록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점을 후하게 주는 경향이 있다는 면담자 교수의 의견에서 그 이유를 추정할 수 있었다.

Table 4. Difference in satisfaction level of the a remote graduate student by semester

semester satisfaction factors	1st	3rd	5th	F	p
	M(SD)	M(SD)	M(SD)		
curriculum	3.93(1.36)	3.03(1.13)	2.92(1.19)	6.046	.049*
LMS	2.24(1.14)	3.87(1.06)	3.94(1.14)	10.122	.000***
contents of class	3.66(1.07)	3.35(.97)	3.44(1.09)	.322	.756
quality of contents	2.02(.99)	3.06(1.24)	3.94(.80)	8.807	.004**
instructors	3.33(1.30)	3.19(1.01)	3.18(1.04)	.885	.581
off-line activities	2.08(1.17)	3.33(1.26)	3.85(1.11)	6.104	.032*
interaction	3.29(1.02)	3.31(1.20)	3.19(.93)	.348	.709
class evaluation	3.11(1.24)	3.19(.99)	3.65(1.12)	1.522	.929

* $p < .05$, ** $p < .01$, *** $p < .001$

3.3 전공별 만족도 차이

원격대학원생의 만족도가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LMS와 수업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 즉 교육과정($F = 7.435, p = 0.040$), 강의 콘텐츠 질($F = 3.437, p = .029$), 교수자($F = 4.001, p = .010$), 오프라인 활동($F = 7.054, p = .000$), 상호작용($F = 4.254, p = .000$), 수업평가($F = 3.820, p = .039$)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공별 만족도는 교육행정($M = 3.50, SD = 1.04$), 교육상담($M = 3.35, SD = 1.11$), 진로직업($M = 3.32, SD = 1.07$), 교수학습($M = 3.28, SD = 1.19$), 사회복지($M = 3.01, SD = 1.14$)의 순으로, 교육행정이 가장 높고 사회복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담 결과, 대부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수긍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LMS와 수업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전공에 따라 차이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만한 의견이 없었다. 수업평가에 대한 만족도가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과 교육행정의 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은 것에 대해서도 다수의 면담자가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우리 과 원생들은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인데 평가에 엄청 민감합니다. 교감, 장학사 등도 많은데 평가에 관한 한 학생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심지어는 학점이 왜 낮게 나왔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교수들은 성적을 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래서인지 가능하면 성적을 잘 주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학과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학과는 학점을 상당히 짜게 주고 어떤 학과는 후하게 주고.... 원생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은가 봅니다.” (면담자 B)

“우리 교행과는 교감이나 부장교사, 전문직 등 대체로 경력이 높은 편입니다. 대학원을 두 번 다니고 있는 분들도 꽤 되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과에 비해 대학원에 대해 걸음으로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인간관계가 좋은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 교행과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나 싶네요.” (면담자 D)

“우리 학과는 다른 학과에 비해 세미나 참여율이 높은 편입니다. 오프라인 모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도 그러겠지만 그보다는 학과의 분위기가 다른 과에 비해 참 좋은 편입니다. 온라인으로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학과 단합이 잘된다고 할까요. 그것은 학과 대표들의 노력이 크게 작용한 듯합니다. 학교의 정식적인 행사가 끝난 후에도 끼리끼리 모여 다시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대학원에서든 가능하면 오프라인 모임 기회를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담자 E)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종합해 보면, LMS와 수업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에 대한 만족도는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층면담에서도 그와 같은 결과에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LMS와 수업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전공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이유를 내세우지 못했다. 그리고 교육행정 전공이 다른 전공에 비해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면담자 개인의 경험에 바탕을 둔 주관적 판단이기는 하지만 설득력 있는 이유를 들기도 하였다.

Table 5. Difference in satisfaction level of the a remote graduate student by major

satisfaction factors	social welfare	educational administration	educational counselling	teaching & learning	career & occupation	F	p
	M(SD)	M(SD)	M(SD)	M(SD)	M(SD)		
curriculum	2.88 (1.18)	3.77(1.35)	3.40 (1.08)	3.25 (1.21)	3.75 (1.13)	7.435	.040**
LMS	3.46 (1.22)	3.52(.96)	3.37 (1.02)	3.28 (1.30)	3.00 (1.16)	.101	.007
contents of class	3.22 (1.13)	3.80(.94)	3.54 (1.14)	3.62 (1.13)	3.18 (1.20)	1.610	.407
quality of contents	3.00 (1.07)	3.56(1.01)	3.50 (1.03)	3.60 (1.16)	3.73 (1.03)	3.437	.029*
instructors	2.98 (1.20)	3.37(1.11)	3.12 (1.20)	2.87 (1.42)	3.43 (.93)	4.001	.010**
off-line activities	2.96 (1.08)	3.45(1.02)	3.09 (1.14)	3.14 (1.05)	3.21 (.92)	7.054	.000**
interaction	2.81 (.98)	3.06(.94)	3.41 (1.06)	3.25 (1.01)	3.20 (1.06)	4.254	.000*
class evaluation	2.79 (1.24)	3.48(.95)	3.33 (1.20)	3.20 (1.21)	3.09(1.13)	3.820	.039*

* $p < .05$, ** $p < .01$, *** $p < .001$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원격대학원생의 학습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성, 학기,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J대학 원격대학원생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대학원생의 성별 만족도는 교수자, 오프라인 활동, 수업평가에서 남녀 간에 통계적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층면담 결과, 남녀 평등의 차원에서 볼 때 만족도의 성차를 알아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둘째, 원격대학원생의 학기별 만족도는 교육과정, LMS, 강의 콘텐츠 질, 오프라인 활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연한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심층면담에서도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대체로 수긍하였다.

셋째, 원격대학원생의 전공별 만족도는 LMS와 수업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 즉 교육과정, 강의 콘텐츠 질, 교수자, 오프라인 활동, 상호작용, 수업평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교육행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담에서도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대체로 수긍하였다.

이 연구 결과로부터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대학원생의 학습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성차의 관점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심층면담 과정에서 깨달은 것으로, 설혹 여러 요인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성차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개개인의 성격 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을 뿐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들렸다.

둘째, 원격대학원생의 학습 전반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는 LMS에 있다는 점에 고려할 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의 사전교육을 비롯하여 연중 수시로 친절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원격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대부분 비대면, 즉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바 그에 따른 한계점을 최소화 혹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능한 한 오프라인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원격대학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도 시급한데, 이를 위해 교육부[1]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학교 자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다 할 것이다. 이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원격대학원이라면 그 기준들을 앞지르는 교육환경 정비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오늘날 원격교육은 시대적 요청에 의해 점차 확대, 발전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쩌면 원격대학원은 미래의 고등교육의 주요 교육형태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격대학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청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원격대학원생의 요구와 만족도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학생중심 교육은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학생중심 교육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원격대학원생의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는 J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해석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격대학원생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타당화 절차를 거친 신뢰로운 측정도구가 필요한데 아직 국내에서는 그와 같은 검사도구가 개발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점은 이 연구의 제한점이자 후속연구의 주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일반대학원 원격대학원생의 만족도를 알아본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리고 조사연구의 양적 접근과 심층면담의 질적

접근을 병행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원격대학원의 교육과정, 학습플랫폼(LMS) 구축, 강의 콘텐츠 개발·제작 등 학생중심 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개선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2018). *Standards for operation of remote learning in general universities*. Sejong: Author.
- [2] J. S. Kimk (2017). The prospect of future educa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Forum*, 25-36.
- [3] J. H. Park & K. U. Ryu (2014). The Analyses of the Concepts, Contents, Satisfaction and Future Needs for College General Education.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8(2), 43-82.
- [4] Y. J. Joo, A. R. Kang & E. G. Lim. (2016). A Meta-Analysis on the Learning Satisfaction for Cyber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2(2), 145-170.
- [5] J. H. Ku, S. H. Han & H. Kang. (2015). A Structural Analysis of Adult Learners' Lifelong Education Consciousness, Participation Motivation, Learning Outcom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7), 4537-4548.
- [6] S. R. Kim, E. K. Moon & I. W. Park. (2015). Investigation on the Relationships among Students' Elearning Readiness, Teaching Presence and Learning Effects in a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 21(4), 687-710.
- [7] Y. Lee & I. W. Park. (2012). Investigat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Learner Characteristics, Learning Strategies, Teaching Presence, and Learning Effects in e-Learning of Cyber University.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28(1), 137-168.
- [8] Y. R. Joung. (2016).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the retention rate in cyber universit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8(4), 791-814.
- [9] Y. J. Joo, J. Y. Kim & H. R. Choi. (2009). Investigat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regulated Learning, Learning Flow, Satisfaction and Learning Persistence in Corporate e-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25(4), 01-124.
- [10] E. A. Cho & S. Y. Lee. (2016). Analysis on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ask value, e-Learning quality, approaches to learning,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cyber courses. *Journal of Art*

Management, 37, 5-38.

- [11] P. C. Sun, R. J. Tsai, G. Finger, Y. Y. Chen & D. Yeh. (2008). What drives a successful e-Learning?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critical factors influencing learner satisfaction. *Computers & Education*, 50(4), 1183-1202.
- [12] J. H. Ryu. (2007). The impact of factors associated to the learner satisfaction in e-learning for corporation. *Journal of Corporate Education*, 9(1), 121-142.
- [13] K. S. Park. (2006). A Study of the Influential Factors on the Use Motive and Its Satisfaction in E-learning.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19, 5-40.
- [14] P. S. Jang. (2012). Relationships among Learner's Satisfaction, Self-Directedness and Flow Experience in Computer e-Learning.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17(2), 69-76.
- [15] K. A. Choi. (2009).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Learning Strategies and Adult Learners' Self-Directedness in e-Learning.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6(2), 137-163.
- [16] M. H. Kim. (2007).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Learning Satisfaction of Teachers entering cyber Graduate School.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4(3), 297-318.
- [17] E. G. Yoon & Y. J. Lee. (2018). A comparative study on the curriculum of general education across 9 universities of the world to improve the system.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2(2), 259-286.
- [18] N. M. Shin. (2003). Transactional presence as a critical predictor of success in distance learning. *Distance Education*, 24(1), 69-86.

이 정 열(Lee, Jungyull)

[정회원]



- 2004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교육학 석사)
- 2010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교육학 박사)
- 2014년 2월 ~ 현재 : 중부대학교 부총장
- 관심분야 : 교육행정, 교육정책, 교육재정
- E-Mail : jungyull@joongbu.ac.kr